

“대화 속 맥락·감정 이해… 카카오톡 데이터 활용 AI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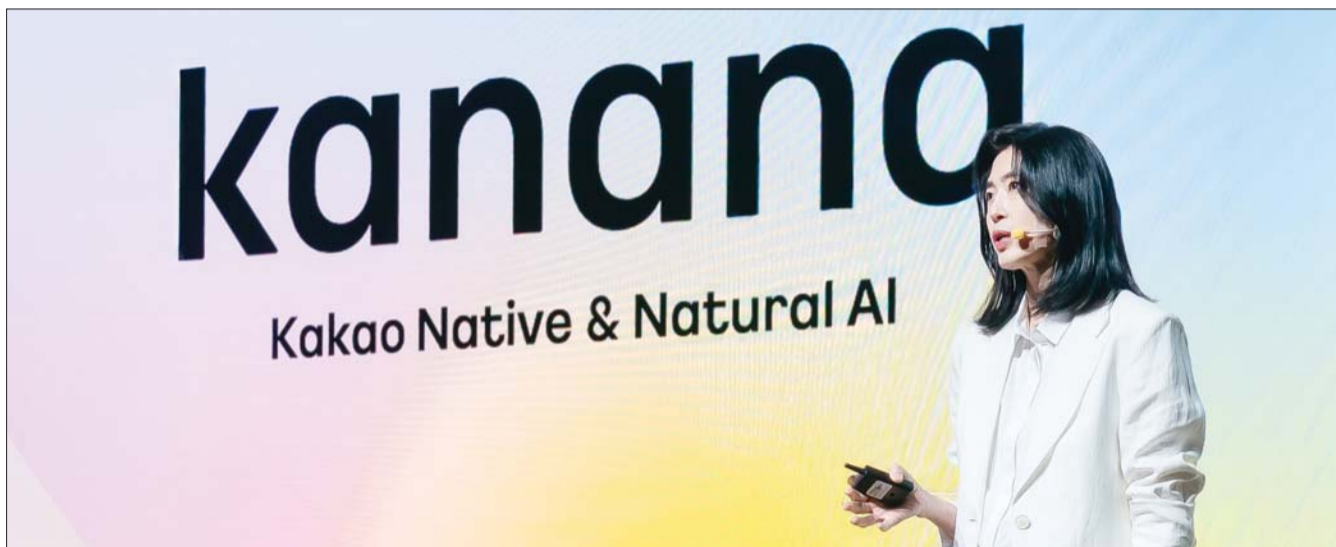
카카오 AI 서비스 ‘카나나’ 공개

카나나 ‘플래그·에센스·나노’ 언어모델 용량 따라 3가지 분류 AI 리스크 관리 체계 ‘ASI’ 개발 “대화 중 컨퍼런스 참석 계획엔 메시지로 알려주는 개인화경험”

“카카오의 유일무이한 차별적 경쟁력은 ‘관계의 연결’입니다. 다양한 관계와 대화 속 개인의 맥락과 감정까지 고려하는 초개인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카카오가 22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인공지능(AI) 캠퍼스에서 개최한 ‘이프 카카오 2024(if kakao AI 2024)’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카카오의 새로운 AI 서비스 카나나(Kanana)를 공개하고 미래 기술 비전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를 AI로 정하고, ‘모든 연결을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24일까지 총 94개 세션을 선보인다. 이프카카오는 카카오 그룹의 기술 비전을 공개하고 개발자 커뮤니티와 기술적 성취를 공유하는 행사로 올해로 6회를 맞이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날 기조세션에서 카카오의 AI 비전을 주제로 카카오가 지향하는 AI 서비스의 미래 지향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가 22일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카카오 개발자 컨퍼런스 ‘이프카카오 2024’에서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 /카카오

점을 밝히고 직접 카나나를 소개했다. 카나나는 카카오의 AI 통합 브랜드명이자 사내 전담조직명, 주요 AI모델, 신규 서비스 이름에 모두 활용되는 명칭이다.

정 대표는 “현재 시장에 있는 AI 서비스들은 추론, 이해, 요약, 코딩 등 각기 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보여줬지만 모든 요소를 종합해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서비스는 없다”며 “카나나는 이용자의 질문에서 가장 알맞은 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조합해 사용하는데, 카카오는 현재 AI 서비스 사용자들의 이용 경험이 카카오톡의 소통 경험과 매우 유사한 점에 착안해 대화에서 쌓인 데

이터를 활용해 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카카오가 연구 개발 중인 언어모델, 멀티모달 언어모델, 비주얼 생성형 모델 등 주요 생성형 AI모델들도 소개했다. 언어모델은 용량에 따라 ▲카나나 플래그 ▲카나나 에센스 ▲카나나 나노로 분류되며, 글로벌 수준의 성능을 갖춘 에센스와 나노를 중심으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이다.

위험도가 큰 기술인 만큼 카카오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인 ‘카카오 ASI(Kakao ASI)’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카카오 ASI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기술 개발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 지침이다. 기술의 설계부터 개발, 테스트, 배포, 모니터링, 업데이트 등 AI 시스템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날 신규 AI 서비스 ‘카나나’도 공개됐다. 연내 사내 테스트버전이 출시될 카나나는 ‘가장 나다운 AI’를 목표로 사용자 경험 극대화를 위해 꾀한다. 일반적인 AI 에이전트(비서)의 효용을 넘어 ‘AI 메이트’를 지향한다. 카카오에 따르면 카나나는 이용자의 이용 시간에 비례해 고맥락화 하는 만큼 이용자의 페르소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상호 카나나엑스 성과리더는 “지난 10여년 간 카카오가 쌓아온 메시지 플랫폼 관련 기술 역량과 서비스 노하우는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을 넘어, AI와 사람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성과리더는 카나나를 통한 맞춤형 답변이 현존하는 주요 빅테크 기업의 생성형 AI 서비스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나나는 1대1 대화와 그룹 대화 각각에서 모두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인메이트 ‘나나(nana)’와 그룹메이트 ‘카나(kana)’로 나뉜다. 나나는 이용자와의 일대일 대화뿐 아니라, 이용자가 참여한 그룹대화에서의 대화도 기억해 최적화된 개인화 경험을 제공한다. 가령 그룹대화 중 컨퍼런스 참석이 계획되면 이를 메시지로 알려주는 식이다. 다양한 포맷의 문서를 이해하는 만큼 그에 대한 요약과 토의도 가능하다. 텍스트 뿐 아니라 음성모드도 나나와 대화할 수 있다. 카나는 그룹대화에서의 대화를 기반으로 동작한다. 나나와 달리 상주하는 그룹대화 안에서의 대화 내용만 기억해 이용자를 돕는다. 카나나는 카톡과 별개의 앱으로 출시되며 연내 사내 테스트 버전을 내고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SKT, AI 개인비서 ‘에이닷’ PC버전 공개

‘멀티 대규모언어모델 에이전트’ 브라우저로 PC·태블릿서 접근 챗GPT 3종 등 총 8종 무료사용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개인비서 서비스인 ‘에이닷’의 PC 버전 ‘멀티 대규모언어모델(LLM) 에이전트’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PC 버전 출시는 모바일 중심으로 성장해 온 에이닷의 첫 번째 웹 서비스다. 크롬이나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를 통해 PC나 태블릿에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멀티 LLM 에이전트에서는 챗GPT 3종과 엔트ropic의 클라우드 3종, 퍼플렉



SK텔레콤의 홍보모델이 멀티 LLM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모습. /SK텔레콤

시티 그리고 SKT 자체 모델인 A.X까지 총 8종의 LLM모델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오픈 후 별도의 이용료 없이 베타 서비스를 운영하며,

GPT 4o나 클로드 오퍼스처럼 타 서비스 유료 구독 기반의 모델도 베타 서비스 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된다.

모델에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을 경우 일일이 복사해서 붙여 넣는 번거로움 없이 ‘다른 AI 비교하기’ 기능을 통해 한번에 비교할 수 있다. 후속 대화를 진행할 때도 모델을 변경하면 이전 대화 맥락을 반영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교차 대화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은 현재 제공되는 8종의 모델 외에도 구글 제미니와 GPT o1-프리뷰 GPT o1-미니 등 최신 LLM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혜민 기자 hyem@

삼성SDS-앤시스코리아 ‘클라우드’ 협업

SCP 그래픽처리장치 등 제공키로

삼성SDS는 클라우드 분야 사업 확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업인 앤시스코리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앤시스코리아는 미국의 CAE(Computer-Aided Engineering)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분야 글로벌 1위 기업, 앤시스의 한국지사다. 이 회사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자동차, 에너지, 방산, 반도체 등 제조업계에서 제품 성

능 향상과 개발 기간 단축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솔루션이다.

이번 협약으로 삼성SDS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심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며, 앤시스코리아는 이 최적화된 환경에서 CAE 솔루션을 공급하는 한편 기술 지원과 교육도 맡게 된다. 또 양사는 긴밀하게 협업해 사용자들이 SCP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서 앤시스 솔루션을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K C&C, SAP 회계관리 특화솔루션 개발

기존 애플리케이션 대비 비용 절감

SK C&C는 클라우드 기반 SAP 비용·회계관리 특화솔루션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발에는 SAP 전사적자원관리(ERP)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비용처리와 회계관리를 위해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사용하는 경향이 반영됐다. 디지털 ERP 전환 과정에서 추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부담을 줄이며, 기존 SAP 시스템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SAP 라이선스와 업그레이드 비용도 절감시킨다.

/김서현 기자

특히 SAP BTP(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를 기반으로 개발해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SAP ERP 전환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SAP BTP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SK C&C는 SAP 비용·회계관리 특화 솔루션을 ‘SAP 스토어’ 앱 마켓에 등록해 전 세계 기업에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옵슨 ‘2024 로보월드’ 참가

한국옵슨이 반도체, 식·음료(F&B), 자동차, 전자 및 전기 산업 등 폭넓은 산업군에 활용할 수 있는 로봇 솔루션을 선보인다.

한국옵슨은 23일부터 나흘간 일산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는 ‘2024 로보월드’에 참가한다.

옵슨은 이번 전시에서 ▲고속·고정밀을 구현하는 하이엔드 스카라(SCARA) ‘GX 시리즈’ ▲세계 최초 폴딩 암(Folding Arm) 구조로 협소한 공간에도 자유로운 동작 구현이 가능한 ‘N 시리즈’ 등을 전시한다.

/이혜민 기자

토스 앱에 AI ‘익시’ 활용 콘텐츠 추가

LG유플러스-비바리퍼블리카 맞손

모바일 금융 앱 ‘토스’에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AI(인공지능) ‘익시’를 활용한 콘텐츠가 추가된다.

LG유플러스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익시 기술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일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LG유플러스 정수현 컨슈머부문장(부사장), 정혜윤 마케팅그룹장(상무), 한영섭 AI테크 랩장(담당), 김희진 통합브랜드마케팅 팀장, 토스 이승건 대표, 김형빈 광고부문장(부사장)과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AI 기술 기반의 전략적 제휴 마케팅 협력에



21일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왼쪽부터) LG유플러스 정수현 컨슈머부문장, 토스 이승건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LGU+

/LGU+

나선다. 익시를 활용해 제작한 콘텐츠를 토스 앱에서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양사는 지난 9월부터 토스 앱을 통해 AI 기반 콘텐츠의 선호도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A/B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